

평안 죽복

<밍후이 팩스>증간
2021년 6월 11일 제 31 기

'돌파프로그램' 파일 내려받기
컴퓨터판 : <https://git.io/fgp88>
안드로이판 : <http://git.io/fgm88>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이여사는 국내의 큰 병원에서 회계사 직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때 그는 만성 신장염에 걸렸다. 그의 시아버지가 병원의 유명한 신장과 전문의여서 그에게 제일 좋은 약을 복용하게 했지만 역시 더 악화되지 않게 유지할 수 있을 뿐이였다. 호주에 온후 1999년에 파룬궁의 병치료와 신체건강에 기의한 효과가 있다는 소개를 들었으나 그는 모두 미신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친구의 강렬한 추천하에 <전법륜(转法轮)>을 보았는데 그후 신체는 단번에 좋아졌다. “당시 저는 아직 연공을 시작하지 않았고 단지 <전법륜(转法轮)>만 읽었지만 신체가 완쾌됐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책을 보고 있을 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바로 화장실에 가서 배출하고 나니 가스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출국할 때 아주 많은 약을 챙겨왔으며 몇 일 안 돼 전부 끊었지만, 신체는 오히려 나날이 좋아졌습니다.”

기적 갓난아기를 괴롭히던 희귀 피부병이 완치된다

명백 대입 시험 지도교사의 성공 비결

귀진 유리체 수술에서 종래로 실패하지 않은 의사

이혼모는 우울증에서 벗어나다



▲ 캐시가 천국악단 대행진에 참가하다.

56세인 캐시마는 회계고문가로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을 한다. 그는 조용하면서도 온화했고 얼굴에는 늘 담담한 미소를 짓었다. 하지만 그녀가 원래 12년간 고통속에서 발버둥쳐왔음을 그 누군들 상상이나 할 수 있으랴?

임신한지 5개월이 됐을 때 남편은 그녀를 버리고 또 새로운 행복을 찾아갔다. 캐시는 고독감과 모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졌다. “저는 늘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야말로 저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여겼습니다.” 매번 캐시가 우울증이 발작할 때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칼을 잡거나 혹은 빌딩에서 뛰어내릴까봐 두려워서 끈으로 그를 묶을 수 밖에 없었다. 병세가 엄중할 때면 그는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면 또 쓰러지곤 했다.

임신기간에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또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의 아들도 우울증에 시달려 6세가 돼서야 말을 하기 시작했고 평소에는 말수가 적었다. 캐시의 우울증이 발작할 때면 그의 부모님은 아이를 다른 방에 데려갔지만 아이는 여전히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캐시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딸에게 말했다. “너는 너 한 사람만 괴로운 줄 아니? 너의 아들을 봐! 너보다 훨씬 가엽고 불쌍해.” 캐시는 끝없이 괴로웠다. 그는 심리의사와 의료전문인

사들의 상담을 받으면서 금전을 아끼지 않았으나 치료방법을 찾지 못했다. 병만 발작하면 자살하고 싶은 넘두만 떠올랐다.

1997년 친구가 그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소개했다. 캐시가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설법 영상을 본 다음 놀랍게도 그의 오른쪽 팔아래에 있었던 낭종이 사라졌다. “이

낭종은 여러 해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오른쪽 팔 전체에 통증을 느꼈고, 심각할 때면 통증 때문에 글도 쓰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기묘한 일에 대해 저는 오히려 우연하게 생각했고, 파룬따파의 위력이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1999년이 돼서야 캐시의 친구는 그더러 파룬궁수련생들과 함께 <전법륜(转法轮)>을 읽자고 요청했다. 이번에 그는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전법륜(转法轮)>은 저의 마음 속 많은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독교를 믿었으나 <성경>의 일부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왜서 흙으로 만들었는가? 오른쪽 얼굴을 맞으면 왜서 왼쪽 얼굴도 들이대고 때리게 하는가? <전법륜(转法轮)>을 읽으면서 모든 문제의 답안을 찾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됐으며, 저는 계속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점차 그의 우울증은 개선돼 발작하는 차수가 적어졌다. “일주일에 한번으로부터 한 달에 한번, 그다음 몇 달에 한번씩 발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발작하던 경경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그날 우울정서가 닥쳐오면서 그는 또

▶ 3면에 계속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히하는 기적을 견증하다

● 갓난아기를 괴롭히던 희귀 피부병이 완치되다

작년 3월 말, 외조카부부는 7개월 갓난아기를 데리고 외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는데 누구도 이토록 심각한 상황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기는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어서 얼굴이 망가진 것처럼 본래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외손녀는 말했다. 아이가 태어난지 며칠도 안 돼 몸에 붉은 뾰루지가 자랐는데 이후에 아이 온몸에 부스럼이 자랐다. 머리, 얼굴, 손, 발, 배, 등 뿐만 아니라 생식기에도 자랐다. 누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였고 이 부스럼에서 떨어진 물이 어디로 흐르면 그곳에 또 부스럼이 가득 생겼다. 그 후 두꺼운 딱지가 앉았고 그것이 떨어지면 다시 한 층 한 층 딱지가 생겼다. 딱지가 두껍게 생긴 곳은 갈라 터지면서 피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힘들고 무기력한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가슴을 찢는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힘껏 발버둥 치고 고개를 저으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은 어른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9개월이 되자 상황이 더 심해져 대부분 동안 어른들이 밤낮으로 앓고 자야 했다. 잘 때 아이를 항상 반듯이 눕혀야 했고 어른들이 양쪽에 누워 아이가 피부를 긁을까봐 손을 꽉 잡아야 했다. 가끔 어른이 방심해 아이의 손을 잡지 않으면 아이는 자신의 머리나 얼굴을 긁어 상처부위는



피범벅에 노란 물까지 흘러나왔다. 수유 할때도 반듯이 눕힌 후 양쪽에서 어른 한 명이 아이의 손을 꽉 잡고 긁지 못하게 했다. 또한 머리가 어떤 물건에도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아이가 무슨 물건이든 달기만 하면 정신없이 자기 머리로 들이받고 힘껏 부딪치기 때문이다. 어른이 제대로 돌보지 못해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치면 눈이 뒤집히고 검은 눈동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치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매우 무서웠는데 이런 상황이 몇번 발생했다.

보통 아기가 9개월이 되면 이유식을 먹인다. 하지만 이 아이는 모유 외에 다른 음식은 모두 알러지 반응을 보였고, 부스럼이

기적이 나타났다! 아이는 날마다 호전됐고, 11개월 될 때는 먹을 수도, 잘 수도 있었다. 보름 뒤에 아이를 괴롭혔던 피부병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고, 아무런 흉터도 남기지 않았다.



▲왼쪽 사진 : 아이 피부병은 무서울 정도로 엄중했다. 오른쪽 사진 : 아이 피부병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더 심해져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 외조카는 전국 유명한 중의한테서 약을 3천원어치 구입했다. 그 약을 바른 후 아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또 밀방따라 민들레 물에 설탕을 넣어 아이에게 먹였는데 이틀을 먹으니 아이는 설사가 심해졌다. 외조카사위는 의사를 찾아 외용약을 받아왔는데 바른지 이틀후 부스럼이 더 심해졌다. 돈으로 산 약들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병원에서도 모두 속수무책이어서 다시는 접수하지 않았다. 더는 방법이 없게 되어 온집식구들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이때 조카사위도 조카가 아이에게 대법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틀어주는데 동의하고 뭐라고 하지 않았다.

조카는 어려서부터 언니를 따라 파룬궁을 수련했다. 그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아이에게 대법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틀어줬고 또 사부님의 시 ‘홍음’도 한 수씩 아이에게 외워줬다. 아이가 끊임없이 울고불고 해 어찌 할 방법이 없을 때는 큰 소리로 ‘홍음’을 외웠고 그러면 아이도 차츰 울음을 멈췄다.

수련하지 않는 조카사위도 ‘홍음 – 마음고생’을 외울 수 있어 아이가 울고불고 할 때는 아이를 안고 왔다 갔다 하며 대법 사부님의 시를 외웠다.

당시 상황이 몹시 힘들었지만 우리는 사부님께서 꼭 아이를 보호해주실 것을, 파룬따파에는 초범적인 위력이 있기에 아이가 반드시 회복될 것을 굳게 믿었다.

기적이 나타났다! 아이는 날마다 호전됐고, 11개월 될 때는 먹을 수도, 잘 수도 있었다. 보름 뒤에 아이를 괴롭혔던 피부병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고, 아무런 흉터도 남기지 않았다. 아이의 본래 모습이 끝내 드러났

▶ 3면에 계속

◀ 2면의 계속

는데 살결이 희고 포동포동했다. 지금 아이는 신체 발육이 아주 좋으며 모든 것이 정상이다. 온집식구들은 너무 기뻐한다.

● 여 박사: 오해로부터 사람들과 나누다



금년 5월 13일은 '세계 파룬따파의 날'이자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70세 생신이다. 월남파룬궁수련생 황여사는 일가족은 특별히 차를 몰고 500공리의 길

을 떠나 시드니의 경축활동에 참가했다. 황여사는 회억해 말했다. "2016년 말 동학은 나에게 파룬궁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터넷에서 파룬궁을 모독한 소식을 보았기에 파룬궁에 대한 오해가 있어 배우지 않았습니다. 후에 호주에 간지 얼마 안돼 2살인 딸애가 고열로 인해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그때 딸애가 새환경에서 면역력을 증가하는데 신경을 써야했기에 나는 박사연구를 꾸준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점차 나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 나와 남편은 몇개월간 연속 해 번갈아가며 감기에 걸려 기침을 짓고, 발열했습니다."

행운스러운 것은 2017년에 다시 동학을 만났을 때 황여사는 자신의 오해를 말했는데 동학은 본

인이 직접 겪은 일들로 파룬궁진상을 똑똑히 알려줬다. 그재서야 그는 중공의 거짓 선전과 모독을 인식하고 파룬궁은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한다는 것을 알게됐다. "나는 매일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듣고 연공 동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황여사는 말했다. "거의 2개월간 수련한 후 나는 건강이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를 <전법륜(转法轮)>과 각 지역 설법을 통해 답안을 찾았습니다. 후에 나는 <전법륜(转法轮)>과 영상을 아주 많은 친인과 친구에게 소개했습니다. 나의 남편, 부모님, 동생과 일부분 친구, 직장동료들은 현재 모두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있습니다. 나도 순리롭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 1면의 계속

고통과 이성을 잃는 상태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말했다. "예전과 다른 점이라면 부모님은 불시에 내가 평시에 늘 듣던 사부님의 설법 녹음이 생각나 나에게 틀어 주었는데 저는 즉시 조용해 졌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가르치신 자살은 파룬따파 법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단번에 청성해 져서 이런 생각을 거부하고 배척했으며, 파룬따파를 굳게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도 신기했습니다. 제가 의념을 견정하면서 차운행로부터 차살하려던 충동에서 철저히 벗어났고, 12년간 저를 괴롭히던 우울증이 철저히 사라져 다시는 발작하지 않았습니다." 캐시는 말했다. "아들도 저와 함께 파룬따파를 수련하면서 얼굴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와 아들의 변화를 보고 부모님도 수련을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집은 웃음이 가득 합니다."

위험시각에 자비로 구도받다

● 대형 화물차 차 밑에서 기적처럼 탈출하다

자전거 앞바퀴가 깔려 변형하고, 아이가 순식간 자전거에서 뛰어내린 후 바로 화물차 밑으로 빨려들어갔으나 또 한갈래 힘에 의해 화물차 밖으로 밀려나왔다. 세상에! 짧디 짧은 시간에 두번이나 목숨을 빼앗겼으나 아이는 이렇게 피했다.

2019년 10월 22일 오후, 아이는 등교길에서 모래를 실은 중형 화물차와 부딪쳤다. 화물차가 십자가로에서 회전할 때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직행했고, 기사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 부딪친 다음 아이의 자전거 앞바퀴는 화물차 바퀴에 깔려들어갔고, 아이는 자전거에서 뛰어내렸다. 따라서 아이는 차 밑으로 빨려들어갔다.



기사는 사고 발생 상황을 모르고 계속 운전하고 있었다. 길 맞은켠에 있던 차 기사가 화물차 밑으로 교복을 입은 학생이 빨려 들어간 현장을 목격하고는 힘껏 경고음을 울리면서 화물차 기사더러 차를 세우도록 손짓했다. 화물차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는 동시에 아이는 한갈래 힘에 의해 화물차 밑에서 밀려 나왔다. 그들은 급히 아이를 병원으로 호송했다.

나는 병원 응급실에서 몹시 평온한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조용히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저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쨌싼런하오(真善忍好)'를 제가 사고를 당했다고

▶ 4면에 계속

◀ 3면의 계속

인식한 순간부터 끊임없이 외웠고 줄곧 멈추지 않았어요.”

엑스레이 사진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의 발 힘줄은 끊어지지 않아 수술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3곳에 골절이 돼 고정이 필요했고, 큰 발가락 안쪽 근육이 찢어져 10바늘 꿰매야 했다. 우리는 낮에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타서 밤에는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매일 아이와 함께 법공부하고 연공했는데 아이의 변화는 매일매일 달랐다. 6일째 되는 날 골절된 뼈는 완쾌됐고 엑스레이 사진에서 골절 흔적마저 없었다. 우리는 퇴원 절차를 밟았고, 기사의 배상금을 단 한푼도 받지 않았다. 나는 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에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당신과 우리집 아이는 이 겁난을 피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파룬궁수련을 한지 여려해 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은 모두 대법사부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이가 차밑에 깔렸을때 한갈래 힘이 그를 밀어 내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는 1.7미터 기장인데 무슨 이유로 몇개의 큰 바퀴를 피했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몇개의 큰 바퀴를 피했겠습니까? 당시 착용했던 안경마저 완전한채 떨어뜨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만나게 된 것은 얼마나 행운입니까? 한차례 액운을 풀었습니다! ”그는 놀라했다. 나는 말했다.“기회가 있으면 <전법륜(转法轮)>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듣고나서 기사의 눈가에서 감동의 눈물이 맴돌았다. 기사는 말했다. “그렇습니까, 지금 벌써 읽고 싶습니다.”

아이는 한 차례 교통사고에서 기적처럼 탈출하여 두 가정을 구했다. 이 아찔한 과정을 뒤돌아보면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20여년 수련하고 파룬따파는 나의 인생과 동반해 생활 속의 좌절과 간난신고에 직면한 작은 일에서부터 생사에 관련된 큰일까지 모두 사부님의 제자에 대한 자비로 가득했다. 파룬따파는 한 사람의 생명을 개변할 수 있고 복을 얻게 한다. 나는 사람들이 마음 조용히 파룬따파의 진상을 알아보기를 바란다. 파룬따파는 진정으로 사람을 구하러 온 불법(佛法)이다.



● 생사관두 엄마와 태아는 구원됐다

아주버님과 동서는 모두 파룬궁을 수련한다. 조카도 파룬따파 수련환경에서 자랐다. 조카며느리도 대법을 아주 존중하며, <구평 공산당> 영상을 보았으며, “삼퇴”를 선택했다.

조카며느리가 해산하는 날 태아의 머리가 보이지만 걸려서 더는 나오지 못해 난산으로 됐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의사가 힘을 쓰라고 하자 그는 아침에 마신 음료수를 토하기 시작해 근 한시간이나 토했다. 후에 완전히 힘이 빠졌고, 어지러워졌다. 의사는 더 지체되면 태아가 질식 될 위험이 있을 뿐더러 산모에게도 생명위험이 있다면서 기기로 태아의 머리를 끌어당기겠다고 말했다. 하자만 수많은 실례가 증명하다시피 강제로 끌어낸 태아의 생존률은 지극히 낮았고, 설령 생존해도 후유증이 남아 지력장애나 혹은 발달장애아가 될 수 있다.

기적이 발생했다! 이 삶과 죽음의 절박한 고비에 조카며느리는 힘이 빠진 상태에서 순산했다! 신생아는 모든 것이 정상이였고 응애하며 잘도 울었다. 현장에 있던 의료진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기적이였다. 상식대로 말하면 태아가 두시간이나 걸려 나오지 못할때는 이미 질식했다. 모두들 조카며느리의 행운을 감탄했다.

나중에 조카며느리는 비활바없이 감은하며 말했다. “이 것이 제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대법사부님께서 우리모자를 보호 해 주셨습니다. 사부님께서 명을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진상을 똑똑히 알고 복보받다



● 대입 시험 지도교사의 성공 비결

작년 전염병시기 대학 입학시험에 참가하려는 샤오춘의 엄마는 특별히 나를 찾아 내가 샤오춘을 보도해 줄 것을 희망했다. 그것은 전에 내가 그의 친척아이를 보도해주었을 때 순리롭게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이다.

샤오춘은 재수생이기에 대학시험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전염병시기 수업 과정은 전부 온라인으로 바꾸어 효과가 좋지 않아 온집식구들은 압력이 아주 컸다. 샤오춘이 온다음 보니 그는 많은 지식을 배우지 못한 듯 했다. 어떻게 그를 도와 신속히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나는 자신이 있다. 진상을 알고 ‘삼퇴’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여러 번 검증된 성공의 비결이다. 그러므로 수업에서 나는 적당할 때 대법진상을 그에게 알려줬다. 샤오춘은 인정했고, 그는 중공의 부패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 나는 또 중공의 폭정, 중공이 ‘천안문 분신 사건’을 조작해 파룬궁을 모함하고 대법제자의 장기를 생체로 적출하는 등 진상을 알려줬다. 내친김에 그에게 공청단·소선대를 탈퇴 시켜줬다.

학생으로 말하면 평온한 마음과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 요소 중 하나다. 그러므로 그가 수업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무리 시험을 잘 보지 못해도, 혹은 터무니없이 틀려도 나는 적극적으로 격려했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

다. 샤오춘의 엄마는 나에게 말했다. “제 한 동창에게 샤오춘의 다른 과목을 가르치게 했어요. 하지만 매번 그는 아이에게 맞게 하는게 하나도 없다고 꾸짖었어요. 저와 아이는 동창의 집에 가서 지도를 받을 때

마다 고통에 시달렸죠! 하지만 선생님은 다르세요. 매번 아이가 돌아올 때 자신감이 넘쳐요. 저도 매번 선생님과 통화한 후 희망이 넘쳤어요. 정말로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선생님은 우리 집의 귀인이세요!”

이후 대입 시험 점수가 나왔고 샤오춘의 어머니는 가장 먼저 나에게 점수를 알려주며 만족해 했다.

최후 샤오춘은 뜻대로 대학에 입학했다. 샤오춘 부모는 나에게 식사 대접을 요청했다. 밥상에서 나와 샤오춘 어머니, 아버지는 기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 둘은 모두 의사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두 무한 의사가 무한 폐렴에 걸렸지만 나중에 ‘파룬따파하오, 쪐싼런하오’를 염해 기적처럼 회복된 사실을 말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이런 말을 들었다.

샤오춘의 아버지는 말했다. “그해 제남(濟南)에서 공부할 때 천불산(千佛山)에서 많은 사람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걸 봤어요.” 나도 확실하다고 말했다. “1999년 7·20 박해전에 1억 명이 파룬궁을 수련했고, 그때 원흉 강택민 혼자 파룬궁을 탄압하려고 했어요.” 나는 또 귀주 “장자석”에 쓰여

진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產黨亡) 6자는 자연으로 형성됐다고 알리자 그들은 핸드폰으로 ‘장자석(藏字石)’을 검색하고 나서 이 것이 사실이였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말했다. “하늘에서 중공을 멸하려 해요. 하지만 우리는 당·단·대를 가입할 때 맹세한 적이 있어요. 생명을 그에게 바친다고 했어요. 이것은 독한 맹세입니다. 단지 마음속으로 당·단·대를 탈퇴하면 이 독한 맹세를 지울 수 있고 재앙을 피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선한 사람인데 중공에 따라 불운해지면 안 돼요!” 그들은 머리를 끄덕였고 나는 그들의 ‘삼퇴’를 도와줬다.

나는 말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인연입니다. 나는 돈을 위해 온것이 아니라 인연을 위해 왔습니다. 샤오춘의 어머니는 가방에서 두꺼운 돈다발이 든 편지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이것은 선생님께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을 들은 후 저는 이것을 드리는 건 선생님에 대한 모독인 것 같아요. 당신은 진정한 선생님이세요!”

● 우담바라 꽃이 피어 여동생의 마음이 환해지다

2009년 가을, 남동생은 여동생의 집 베란다에 키우는 식물에 종래로 본 적 없는 작은 흰꽃을 발견했다. 그는 내가 평소에 말하던 우담바라와 같다고 느껴졌다. 여동생은 내가 그에게 준 2009년 션원영상을 찾아 풀었다. 3번째 프로 “우담바라가 피었다”를 보고서야 그의 집에 진짜 우담바라꽃이 피었다는 것을 똑똑히 인정했다. 여동생은 기뻐서 전화로 온집식구와 그의 동학, 친구에게 알렸다.

◀ 5 면의 계속

그전에 여동생은 대법진상을 듣기 싫어 했는데 우담바라의 신기함을 견증한후 태도가 즉시 변해 즐겁게 션원영상을 꺼내 사람들에게 틀어주었다. 여동생과 집식구들, 그리고 청해 온 촬영전업 동학 모두 ‘삼퇴’를 했다.

말하자니 정말 신기했다. 여동생은 ‘삼퇴’한 후부터 많은 일이 순조롭기 시작했다. 생각이

전처럼 고집스럽지 않게되고, 사람도 가벼워 졌고, 원래 아주 좋지 않은 신체도 점점 좋아졌으며, 장사도 불시에 잘되어 돈을 벌었으며 깨나 이를있는 남색 자가용도 장만했다. 그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真善忍好)의 호신부를 차에 걸어놓았다. 한번은 엄중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모자는 다친데 없이 평안했다.



한국 절간의 한 불상(佛像)에 편우담바라

심신정화 반본귀진

유리체 수술에서 종래로 실패하지 않은 의사

밤 11:30 에야 나는 수술대에서 걸어나왔다. 그날 수술은 아주 많아 아침 8:30 부터 수술을 시작해 체력 소모가 아주컸다. 시간을 다그쳐 오늘 금방 받은 한 환자를 검사했는데 그 남성의 눈안염증이 아주 심한 것을 보고 나는 즉시로 수술 할 것을 결정했다. 나의 조수는 말했다. “선생님의 신체는 젊은이들도 비길 수 없습니다. 선생님 같은 자력(資历)을 가진 교수 중 누가 밤늦게까지 수술합니까, 모두 다음날로 예약을 잡습니다.”

그렇다. 내가 파룬대법(法輪大法)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나의 심신은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 나는 무슨 체력으로 다음 수술을 계속 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안과주임으로서 금년에 54세이다. 1996년부터 파룬궁수련을 시작해 파룬따파(法輪大法)에서 자비심을 수련하였기

에 매 환자를 선하게 대할 수 있었다.

야밤에 긴급 수술 해 환자의 안구를 보전하다

야밤 12 시 후 나는 또 수술대에 올랐다. 수술 중 환자의 눈동자가 감염된 상황을 보고 나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이튿날에 했더라면 안구를 보전할 수 없었을 것이고 환자는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것이다. 적어도 현재는 환자의 안구를 보전해 0.3의 시력이 남아있다.

이튿날 병실을 돌때 그의 가족은 나에게 물었다. “저의 아버지께 수술하신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내가 맞다고 하자 그는 정중하게 90도 경례를 했다.

퇴원할때 이가족은 나를 찾아 말했다. “주임님, 우리집 식구들은 진심으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생각엔 선생님이 일반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말을 할때 온몸이 떨리고, 솜털이 서는게 선생님의 말씀에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에게 파룬궁진상을 알려주었다. 그는 파룬따파는 중공에 의해 모독됐다는 것을 알고서 즐겁게 그전에 가입했던 소선대 조직에서 퇴출했다. 그는 연이어 말했다. “파룬궁은 좋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파룬궁은 진짜 대단합니다!”

유리체(玻璃体) 수술에서 기적을 창조하다

근 10년래 나는 주요하게 유리체수술로 눈안의 질병을 치료했다. 이런 수술은 난이도가 높고, 모험성이 크고, 학습곡선이 길다. 2019년 안과년회에서 나는 유리체수술 시뮬레이터를 발견하고 연습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의 완정한 유리체수술 조작과정을 만들어 실수 없이 매 보조마다 모두 완미했다. 나는 자신이 유리체수술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기억에 처음으로 이런 수술을 할때 환자상황은 유리체에 피가 고였다. 환자는 나를 아주 신뢰했다. 나는 수술전 열심히 분석하고 자신이 수술을 잘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신심이 가득찬 나는 수술대에 올랐다. 나는 마음이 평온하고, 정력이 집중됐다. 매 한 보조마다 나는 요구에 달성했다. 빠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온정하기만 바랐다. 순조롭게 수술을 완성하여 이튿날 환자의 시력이 0.8에 도달했다. 환자는 아주 만족해 했다.

이방면의 국내 전문의들은 모두 유리체수술 의사로서 100개 안구를 멀게하지 않고는 진정한 유리체수술 의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처

◀ 6 면의 계속

음 수술환자로부터 시작해 3년간 실패한 병례가 없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한차례 국내 전문가 학술교류회에서 나는 몇개 수술병례를 내놓고 교류했다. 목적은 전국전문가들을 요청해 나의 부족점을 점검하려던 것이였다. 전문가들이 보고나서 모두 말했다. “이 의사 는 유리체수술을 금방 시작했으나 그는 진정한 유리체수술의사다! 그가 수술중 나타난 복잡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목표에 달성할 때까지 내심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프로답다. 매개 수술을 모두 잘했고, 수술 효과는 일체를 설명한다. 탐복할만 하다!”

“보너스(红包)”를 거절하다

몇년전 한 지금(地級) 시 선전부문의 영도는 당뇨병에 걸려 시각막병리변화가 아주컸다.

환자가 아주 근심하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을 풀어주며 말했다. “지금은 설비와 기술이 좋아, 당신 같은 환자들이 치료효과가 좋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절때

이렇게 긴장해 하지 마십시오. 정신압력이 크면 혈당, 혈압이 모두 온정하지 않습니다.” 입원기간 나의 관심하에 그의 마음상태가 많이 좋아져 그는 아주 감사해 했다. 수술전 그와 그의 부인은 나에게 보너스를 주었는데 나는 거절했다. 그들은 아주 놀라면서 말했다. “보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 나같은 의사라면 수술차수가 이토록 많은데 일년이면 보너스만 해도 적어도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파룬궁수련생입니다. 대법사 부님께서는 우리더러 가장 좋은 사람이 되고, 일을 할 때면 타인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종래로 보너스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파룬따파 진상과 나와 가족이 받은 수익을 말했다. 그는 말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전 우리는 파룬궁에 대한 인식이 모두 부정적이였습니다. 주임님, 며칠간 선생님과의 접촉에서 선생님이 매 환자에 똑같이 진심으로 대



하는 것을 보고 나는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둘은 가명으로 ‘삼퇴’하고 성심껏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真善忍好)’를 념했다. 그리고 여러 번 관심해 말했다. “주임님, 안전에 주의 하십시오. 우리 환자들은 선생님과 같은 좋은 의사가 없으면 안됩니다!” 수술이 끝난 뒤 그의 시력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는 그들이 진상을 똑똑히 알아 복을 받은 것이다.

한테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고, 또 남편의 회사에 가서 후사비용과 일부분 보상금을 요구했다. 회사측에서는 이런 돈을 사망자의 아내한테만 줄 수 있다고 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시아버지는 불미스러운 행위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 게다가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신 나의 친정 아버지를 생각하니 나는 하늘땅이 깨지는 듯 했다. 결국 나는 견디지 못하고 당시 묵었던 초대소에 쓰러졌고, 그들과 도리를 따질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시아버지에 대해 원한을 맺았다.

후에 나는 딸애를 데리고 지금 성시로 돌아왔고, 내가 교학하는 학교는 시댁과 가까웠다.

시댁 식구 중 한 분이 나와 같은 학교 직원이기에 시아버지는 우리가 온줄 알았고, 5년 사이에 시아버지는 세번이나 학교로 찾아와 손녀를 보고싶어 하셨으나 나는 모두 만나지 않았다.

1998년 1월, 나는 파룬궁을 수련해 온 몸의 병이 사라졌다. 너무 미묘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변했다. ‘진선인(真、善、忍)’ 법리로 대조해보고 시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생각하니 내가 달라져야 마땅했다. 그러나 원한의 매듭이 매우 단단해 틈이 없었고, 게다가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에 매우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만약 내가 행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어찌 수련자이고, 어찌 좋은 사람이겠는가?

▶ 8 면에 계속

마음을 수련하여 관용하고 인내하다

● 가슴 깊이 맷힌 원한을 풀고 자비롭게 소원을 이루다

1993년, 딸이 겨우 7살 때 남편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불러 깨우려고 했는데 시아버지는 불시에 나에게 큰소리를 질렀다. “뭘 하려는 것이야?” 마침 모든 불행을 내가 조성한 것처럼 나를 대했고, 억울한 김에 나의 눈물은 한없이 흘러내렸다. 남편은 3일 후 사망했다. 그 후 시아버지는 연이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했다. 그들은 나

◀ 7 면의 계속

마침 그때 친척을 통해 들었는데 근래 시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했다. 나는 시아버지를 뵐려 가겠다고 알렸다. 그런데 내가 가기도 전에 시아버지께서 먼저 학교로 오셨다. 손녀를 보시더니 시아버지는 우셨다. 5~6년 새 시아버지는 많이 늙었고 정신 상태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나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고 그도 몹시 고달프다고 여겨졌다. 나는 처음으로 시아버지도 역시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남자로서 시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셨기에 그는 아버지 이자 엄마가 되어 아이 몇 명을 훌륭히 키워야 했다. 직장과 가정을 다 책임지시느라 시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을까? 또 노인은 젊은 자식을 앞세우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그 당시 이성적이지 못한 그의 행위를 탓할 수 없으며 그가 돈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는 것도 탓할 수 없었다.

그런데 나는 왜 이 몇 해 동안 이런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을까? 나는 시아버지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지 못했고 늘 원한의 마음을 잡고 놓지 않았다. 게다가 손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고통을 더해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무치게 했다. 그가 몇 번이나 학교에 와도 매번 아이를 볼 수 없었는데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기까지 생각하자 나는 망연해졌고 마치 더는 예전의 내가 아닌 듯 했다. 나는 완전히 변한 자신을 발견했다. 사상 관념은 아주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마침내 나는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아리게 되었다. 그후 나는 시아버지를 집에 오시게하고 시아버지께서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리며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비록 아들은 없어도 그는 천륜지락을 누릴 수 있었다. 시간이 길어지자 시아버지는 내가 진심으로 그에게 잘해주고 있음을 느껴 매우

감동했다. 그리고 “삼퇴”까지 했다.

후에 시아버지는 양로원에 들어가셨다. 나는 자주 그를 보러 가면서 먹거리와 이런저런 필요한 물건들을 사드렸다. 시댁사람 모두 내가 시아버지께 효도한다는 걸 알게 됐고 양로원의 사람들도 알았다. 한번은 내가 시아버지를 보러 갔는데 시아버지가 없었다. 나는 같은 병실 노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 시아버지는 당신이 가장 잘해준다고 말했어요.” 나는 말했다. “저는 조건이 좋지 않아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마침 대학에 다녀서 경제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자녀로서 해야 할 효도를 할 뿐입니다.” 그때 나와 이야기하던 노인의 눈길이 문쪽을 바라보더니 말을 멈췄다. 내가 고개를 돌려 보니 시아버지가 마침 그곳에 서서 눈물을 닦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세상뜬 후 유서에 그가 일생 모은 작은 저축을 아들딸에게 나눠줬는데 내 몫도 있었으며 일부급여는 내 딸애 앞으로 남겨주셨다. 시아버지는 대법 진상을 똑똑히 알았으니 그의 생명은 좋은 귀속이 있을 것이다.

● 대법은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한다

하루 나는 큰딸 시부모집에 갔다. 사돈은 파룬궁을 요해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4시간 얘기를 나눈 후 그는 파룬궁을 배우겠다고 결정했다. 집에 돌아간 후 그의 아내는 그를 연마하지 못하게 했다. 원인은 그의 아내는 기독교를 믿기 때문이다.

나는 물었다. “당신은 집에서 밥을 지어봤어요? 불쏘시개를 들여봤어요? 이불을 개 봤어요? 가축에 먹이를 줬어요?” 그는 다 아니라고 답했다. 나는 말했다. “그럼 이번에 반대로 모든 일을



다 맙아서 해봐요. 입으로만 수련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봐요.” 그러자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모든 일을 맙아 했다.

이틀후 그의 아내는 그가 변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파룬궁을 배워요, 사부님께서 나더러 좋은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집에서도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라고 했어요. 앞으로 나는 담배도, 술도, 도박도 모두 끊겠어요.” 그의 아내는 너무나 기뻐서 사람만 보면 대법이 좋다고 말했다.

며칠후 한 노인이 그의 큰 변화를 보더니 그도 대법을 배우고 싶어했다. 그리고 나의 큰딸과 사위와 함께 법공부를 시작했다. 그들은 분홍색, 녹색으로 된 ‘파룬따파 하오 (法輪大法好)’ 등 진상표어를 아주 많은 전봇대에 붙이고 나무에 걸었다. 글이 아주 커 먼 곳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하루밤 사이에 이렇게 많은 진상표어를 내걸어 촌서기를 깜짝 놀라게 했다. 나는 서기에게 말했다. “두려워 하지 말고, 이는 전 촌 백성들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급에서 아무 말 없으면 당신도 모른 척 하세요. 혹 상급에서 당신을 찾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가 뜯으면 그들이 또 붙이는데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 서기는 웃었다. 그후 더는 간섭하지 않았다.